

“살기 좋은 영양 위해 도전·변화... 생태관광도시로 혁신”

오도창 영양군수 언론 간담회

민선7기 성과, 향후 군정방향 발표 남은 임기 동안 농업 경쟁력 제고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 완성할 것”

오도창 영양군수는 7일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관계자 간담회에서 민선7기 3년간의 군정 성과와 향후 군정 방향을 발표했다.

오 군수는 “그 동안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날 참석한 언론관계자들에게 “민선7기가 3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고, 군민들의 대변인으로써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영양군의 성장축인 농업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분야별로 민선7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오도창 군수가 민선7기 3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군정방향을 발표했다. /영양군

취 분야별로 민선7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농업과 관련된 성과로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영양 분소 유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농작업 인력을 확보했다. 영양의 특산물인 고추품질개선을 위해 장려금 인상과 수매단가를 높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소득에 힘썼다.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면단위의 지역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 마을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실었다.

영양군은 지역특성상 고령인구에 대한 민원 개선도 힘썼다. 생활민원바

로 처리반을 가동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섰다. 맞춤형 어르신 복지와 영양 전통시장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를 들었다.

지난 3년의 성과에서 오 군수는 남은 임기 군정 방향으로 농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생태관광 도시로의 재탄생을 예고하였으며, 군민이 행복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3년은 살기 좋은 도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 없는 도전과 변화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낸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냈다고 확신한다”며 “민선 7기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군민들과 약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언론관계자분들의 협조와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보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준공식 현장. /보성군

보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준공

보성군은 보성읍 용문리 환경자원사업소 내 생활자원 회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보성군은 7월 한 달간은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작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은 1천506㎡ 규모이며 재활용품을 자동 선별할 수 있는 기계 설비가 완비되었고, 선별동, 관리동, 저장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 방식이 자동선별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연 3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신안군, 비금도 ‘치유의숲’ 조성

사업비 50억 확보, 편백숲길 구축 신안 천일염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안군이 전라남도 산림생태관광분야 핵심사업인 치유의숲 조성사업 50억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비금도 치유의숲 조성사업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산림치유 기반을 확충하고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는 천사대교와 추포대교 개통으로 백길 여행이 더 편리해져 외부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금도’이다. 편백나무·천일염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비금도 치유의숲을 조성하여 산림생태 휴양문화와 관광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금도 치유의숲은 편백숲길과 해당화언덕길을 거닐며 푸른 바다와 녹색의 숲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산책이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신안을 대표하는 천일염을 활용한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신안군 비금도 전경

하여 코로나와 인공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치유하는 미래 산림서비스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륙에서 벗어난 섬 비금도를 해송과 편백숲 그리고 첫구지해변을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 누구나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생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신안군이 가진 생태환경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바다 위 꽃 정원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부산시, 일주일간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감염 풍선효과 방지 등 방역대응

부산시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

시는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부산내 감염추이와 여름 휴가철, 장마에 따른 감염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현재 이행기간과 같이 8명까지 허용되며, 행사와 집회는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유형시설과 홀덤펍, 홀덤펍게임장,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금지된다.

특히 감성주점과 헌팅포차는 방역 단계와 관계없이 금지한다고 부산시

는 전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밤 12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 100명 미만 제한과 더불어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현재와 같이 직계가족에 한해 예외를 두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를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최근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용인원은 1단계 기준인 50% 내에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2단계 기준을 적용해 금지한다. 더불어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최규춘 기자 ch9720@

경북도, 25개 백사장 중금속평가 ‘안전’

내일부터 해수욕장 순차 개장

경북도내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가 중금속 환경안전성 평가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7일 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동해안 4개 시·군 25개 지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원은 백사장 모래를 채취해 인체에 유해한 납, 카드뮴, 수은, 비소, 6가 크롬 등 5개 항목을 검사했고 평가 결과 25

곳의 백사장 모두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납(기준 200 mg/kg)은 평균 7.1 mg/kg, 비소(기준 25 mg/kg)는 평균 10.19 mg/kg 정도로 미량 검출됐으나 인체에 무해한 일반 자연환경 중의 농도였다.

경북의 해수욕장은 포함시의 영일대를 포함한 6개 해수욕장이 오는 9일, 경주·영덕·울진지역 18개 해수욕장은 16일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최규춘 기자

상주농업기술센터 “비 내린 뒤 고추 방제 신경쓰세요”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고추 재배 농업인들에게 병해충방제 및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잦은 강우로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져 탄저병, 역병 등 병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고추 착과 후 수확기까지 담배나방, 진딧물, 총채벌레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난해 7~8월에는 지속된 강우로 고추 탄저병이 수확 초기부터 발생해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고추 생육 초기부터 저온과 잦은 강우로 생육이 좋지 않았고 바이러스 피해도 작년보다 늘었으며, 7월 강우가 지속되고 집중호우 등도 예상되고 있어 병해충 발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추탄저병

특히 노지고추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탄저병의 피해를 줄이려면 밭을 수시로 살피고 병든 열매는 보는 즉시 제거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수해 비가 오기 전에는 병원균의 포자 형성과 발아를 억제하는 보호 살균제를, 비가 내린 뒤에는 침투 이행성 살균제를 충분히 살포해 주도록 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화순군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화순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한다.

군은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최근 2년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축분뇨 및 폐수 불법 배출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장성군 “국산김치 사용 인증 받으세요”

장성군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



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장성군은 관내 음식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90개소 이상 인증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장성의 대표 음식거리인 장어정식 특화거리 소재 음식점 6개소를 포함해 일반음식점 72개소와 학교, 기업체 등 총 92개 업소에서 인증 신청을 완료했다. /장성(전남)=김태수 기자 ts7080@